

가정의날 계기교육

함께 하는 이야기- 세대가 달라도 함께하는 [취미]

가족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모처럼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말없이 TV나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일도 많은데요, 이럴 때 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취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같이 하다 보면 함께 있는 시간도 저절로 많아지고 가족 사이도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부모 자녀 간에 눈높이를 두루 맞춘 취미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축구 경기 응원도 해보고, 경기를 전후로 축구 관련 이야기꽃을 피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목공

작은 도마나 연필꽃이에서 시작하여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식탁, 자동차, 새집, 의자, 목마 등 다양한 품목을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든 물건을 가정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2. 조립식 블록완구

레고로 통칭되는 블록완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베이킹, 요리

간단한 쿠키에서부터 각종 빵이나 케이크까지 무궁무진한 종류의 베이킹을 한 가지씩 함께 하다 보면 손수 만든 케이크로 함께 기념할 만한 특별 일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4. 스포츠

전문 교육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여건이 어렵다면 전문 교육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배드민턴이나 자전거 타기, 캐치볼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하면 건강도 지키고 가족의 화합도 다질 수 있습니다.

5. 사진 찍기

순간을 기억하는 최고의 수단은 사진입니다. 기쁜 순간, 예쁜 순간, 멋진 순간, 재미있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을 담고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은 누구나 좋아할 텐데요, 가족들이 함께 주제를 정하고 사진을 찍으며 공유하면 추억거리가 몇 배로 늘지 않을까요?

6. 캠핑

코로나19로 집 안에서의 오랜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계절별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자연의 동, 식물을 조금 더 가까이 보다 보면 생태교육도 이루어지겠죠? 캠핑 후 간단한 주변 청소까지 함께하면 환경교육도 가능합니다.

